

새로운 복음화를 위해 매진합니다

편집 및 발행 | 천주교대구대교구 문화홍보실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3동 225-1 (053)250-3048~9 <http://www.daegujobo.or.kr>



예수님의 재림 - 성 고스마와 타미아노 대성당의 모자이크

† 오늘의 전례

나는 내 양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요한 10,27-30 참조)

착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서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시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부르심을 받지 않으면 하느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날 수도 없고 형제자매들을 위해 봉사할 수도 없습니다. 이 부르심은 가장 고결한 사람도 감히 바랄 수 없는 큰 영광인데, 주님께서서는 오늘도 자격 없는 우리를 부르십니다.

제1독서 사도 13,14.43-52

제2독서 묵시 7,9.14L-17

복음 요한 10,27-30

입당송 주님의 자애가 온 땅에 가득하네. 주님은 말씀으로 하늘을 여셨네. 알렐루야.

화답송 ◎ 우리는 주님의 백성, 그분 목장의 양 떼라네.

영성체송 착한 목자, 당신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셨네.

당신 양 떼를 위하여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네. 알렐루야.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성호 세례자요한 신부 | 성소 및 신학생 복음화 담당

부활대축일 다음날 사무실에서 같이 일하는 신부님, 수녀님 그리고 직원들과 함께 엠마우스를 다녀왔습니다. 부산 시내 어딘가를 지나다 차가 대기신호를 받고 멈추어 섰는데 길 옆 어느 가게에 붙여 놓은 광고가 눈에 띄었습니다. '예신', '다이어트', '자신 없으면 시작하지도 않았어!' 결혼을 앞둔 예비신부들을 상대로 다이어트 관련 장사를 하는 업체의 광고였던가 봅니다.

교구 성소담당에서는 '예신'을 다른 의미로 씁니다. 장래에 사제가 될 희망으로 대신학원 입학에 준비하는 이들을 위한 '예비신학교'나 '예비신학생'을 줄여서 '예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고 있던 차 안에서는 '예신, 자신 없으면 시작하지도 않았어!'를 교구 예비신학교 신조로 써도 딱 어울리겠다는 농담도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실은 예비신학교 신조로 써먹기에 딱! 어울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신감 넘치는 자신의 능력과 경력을 믿고 내세워 미래의 사제가 되고자 출사표를 던진다는 생각은 그다지 옳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느님께서 세상의 구원을 위해 당신의 도구로 부른 이들은 보잘 것

없는 이들이었습니다. 이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코린토인들에게 보낸 첫 번째 서간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속된 기준으로 보아 지혜로운 이가 많지 않았고 유력한 이도 많지 않았으며 가문이 좋은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다.” (1코린 1,26) 하느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이 세상의 어리석은 것을 선택하시는 것이고,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이 세상의 약한 것을 선택하시는 것이며, 있는 것을 무력하게 만드시려고 이 세상의 비천한 것과 천대받는 것 곧 없는 것을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어떠한 인간도 하느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1코린 1,27~29 참조)

오늘은 성소 주일입니다. 모든 이가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고 있지만, 오늘은 특별히 사제 성소나 수도성소로 불림 받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 교회의 미래를 위해 당신의 도구로 쓰실 겸손한 이들을 많이 불러 주시도록 우리의 기도를 아끼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말씀**

신앙의 해 교리 퀴즈 ②



하느님의 계시는 주 예수님을 통해 사도들에게 맡겨졌고, 사도들은 성령의 감도에 따라 그것을 두 가지 전달 양식을 통해 후대에 전하였습니다. 동일한 원천에서 나와 서로 긴밀히 결합하여 신앙의 유산을 형성하는 이 계시의 두 전달 양식은 무엇일까요?



“사도들은 그리스도께서 자신들에게 맡겨 주신 것을 …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 때까지 모든 세대에 전달하였다. ()과 ()은 교회에 맡겨진 하느님 말씀의 유일한 성스러운 유산을 형성한다.” (가톨릭교회교리서 96~97항)

지난주의 퀴즈를 정정하여 다시 실습니다. 문제는 맞았지만 가톨릭교회교리서의 지문이 잘못 인쇄되었습니다. 틀린 문제에도 불구하고 바른 답을 적어 보내주신 경우 정답으로 간주됩니다.

성소는 믿음에 기초를 둔 희망의 징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서는 지상에서 사실 때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우리 삶의 길을 함께 걸으십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당신을 따르도록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예수님의 초대를 받아들이는 것은 더 이상 우리 자신의 길을 선택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우리의 뜻을 그분의 뜻에 일치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으로 그분에게 주도권을 드리고, 우리 삶의 모든 분야에서, 곧 가정과 일터와 개인적 관심사에서, 그리고 우리 자신과 관련해서도 그분께 첫째 자리를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삶 자체를 그분께 맡긴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매우 친밀하게 살며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 안에서 아버지와 친교를 이루고 결국 우리의 형제자매와 친교를 이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과 이루는 이 친교의 삶은 우리가 희망을 체험하고 우리 삶이 충만하고 자유로워지는 가장 좋은 '자리'입니다.

사제 성소와 봉헌 생활 성소는 그리스도와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에서 나오고, 또한 그분의 뜻 안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그분과 나누는 진지하고 확신에 찬 대화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신앙 체험을 쌓아야 합니다. 이는 예수님과 깊은 관계,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 깊은 데에서 들려오는 그분 목소리에 내적으로 귀 기울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느님의 부르심에 긍정적으로 응답하도록 해 주는 이러한 과정은 그리스도인 공동체들 안에서 가능합니다. 그들은 활기찬 신앙생활을 하고, 복음에 충실한 증언을 아끼지 않으며, 뜨거운 선교 열정으로 하느님 나

라를 위하여 온전히 자신을 바칠 수 있게 이끕니다. 이 과정은 성사들, 특히 성체성사의 거행과 열렬한 기도 생활을 통하여 힘을 얻습니다.

사제와 수도자는 복음과 교회를 위하여 사랑의 봉사를 하면서 하느님 백성에게 무조건적으로 헌신하도록 부름 받았습니 다. 사제와 수도자는 신앙의 증언과 사도적 열정으로, 특히 젊은 세대에게, 당신을 더욱 가까이에서 따르라고 부르시는 그리스도께 기꺼이 곧바로 응답하려는 강렬한 열망을 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사제 직무나 봉헌 생활에 헌신하라는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아들일 때마다,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가장 성숙한 열매 하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저는 또한 젊은이들이 피상적이고 덧없는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서, 참으로 가치 있는 것과 숭고한 목적과 근본적인 선택을 하려는 갈망, 곧 예수님을 본받아 다른 이들을 섬기고자 하는 갈망을 키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고 사랑과 아낌없는 투신의 길, 힘들지만 용기가 필요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길에서 여러분은 섬김의 행복을 누릴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한하고 영원한 사랑의 살아 있는 불꽃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닌 희망에 관하여 누가 물어도 대답할”(1베드 3,15) 줄 알게 될 것입니다.

2012년 10월 6일 바티칸에서
교황 베네딕토 16세



빠름 빠름 빠름~

조재근 마르코 신부 | 월성본당 보좌

가끔 중앙로에 나갈 때에 성당 앞에서 706번 시내버스를 탑니다. 버스를 타러 나가기 전에 스마트폰으로 몇 분 후에 버스가 도착하는지 미리 알아내고는 제시간에 나가면 기다릴 필요도 없고, 이제 막 떠나는 버스 뒤편무늬를 쳐다보는 일도 없습니다. 버스를 타고 출퇴근 하거나 등교하는 바쁜 현대인들에게 버스를 기다리는 수고를 덜어주는 편리한 문명의 혜택입니다.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을 인화할 때에도 어플을 이용해 인화 주문을 하고 집에서 인화한 사진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직접 사진관에 가는 시간과 수고로움을 덜게 됩니다. 책을 살 때에도 매번 서점에 갈 필요 없이 마우스 클릭 몇 번으로 서점에서보다 저렴하게 책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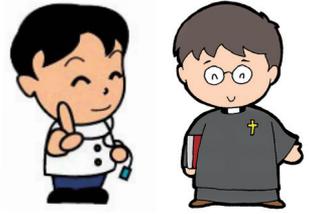
그런데 이렇게 아낀 시간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예전보다 오늘날 사람들이 시간적으로 더 여유 없이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과거에 비해서 하루라는 시간 동안에 훨씬 더 많은 일을 하고 있지만 더욱 바쁘고 시간이 없다는 요즘 사람들입니다. 그러다보니 더 빠른 것을 찾고, 참고 기다리는 것은 건디기 어려워합니다. 유행도 빠르게 지나갑니다. 전자제품의 사양도 빠르게 진화해갑니다. 한 통신 회사의 ‘빠름 빠름 빠름’이라는 광고문구가 마치 우리 사회의 ‘빨리빨리’라는 속도 문화를 대변해주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속도 경쟁을 벌이는 물질문명사회에서 삶의 여유를 찾는 것은 사치스러운 일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잠시 멈추고 삶의 여유를 가지면 남들보다 뒤처지고 경쟁에서 살아남지 못할 것 같은 불안한 마음이 듭니다.

베네딕토 16세 교황님께서서는 지난 성탄 밤 미사 강론에서 ‘신 없는 사회’에서도 행복할 수 있다는 착각 속에서 속도 경쟁을 벌이는 물질문명사회를 향해 “신을 기억하라”고 호소하셨다고 합니다. 삶의 속도를 늦추지 않고서는 하느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우리 삶의 목적지는 하느님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향한 여정에서 하느님을 만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야말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쁜 일상 가운데에서도 하느님을 만나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만 합니다. 바쁘게 사는 것 역시 행복하게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닙니까? 그런데 참 행복은 잠시 멈추고 하느님을 만날 때에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의사와 신부가 된 형제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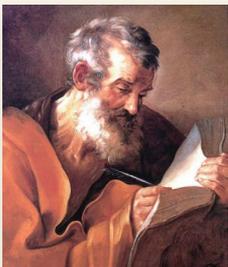
6개월 터울의 사촌지간인 두 형제가 있었습니다. 동생은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싶다’며 가톨릭 수도자가 되어 신학대학에 진학했고, 형은 목표하던 대학에 떨어져 재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신도 성직자의 길로 갈 수 있다는 생각은 하지 못한 형은 그저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하느님께 내던지는 어려운 선택을 한 동생이 자랑스럽기



만 했습니다. 동생은 착하고 성실한 성품의 형에게 함께 사제의 길을 가자고 권하였지만 형은 자신은 너무 많이 부족하다며 사양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대학 입학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을 무렵 형이 동생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나도 너와 같은 길을 가고 싶어. 하지만 나는 너 같은 수도자보다는 사람들과 함께 호흡하는 재속 사제가 되고 싶구나.” 그렇게 해서 형은 광주에서, 동생은 서울에서 각각의 신학생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형이 먼저 군대에 가게 되었고, 동생은 학생운동에 관심을 갖게 되어 점점 신앙에서 멀어져 급기야는 사제가 되는 길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자신보다 1년 먼저 신학교에 입학했던 동생이 대뜸 그만둔 것이 못내 안타깝고 서운했던 형은 동생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이 되자 자신의 길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해보야겠다고 신학교를 휴학했습니다. 감옥에 가 있던 동생은 형이 신부가 되는 길을 계속 걸어가 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늘 가슴에 품고 기도해 주었고 형도 동생이 신학교 자퇴, 구속 등으로 이어지는 생활 속에서 혹시나 좌절하지 않을까 걱정하며 기도해 주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형은 드디어 신부가 되었고 동생은 몇 번의 굴곡 끝에 의대생이 되었습니다. 형은 자신의 삶을 하느님과 사람들에게 온전히 바치는 사제의 길을 시작하게 된 것을 기뻐했고, 동생은 비록 영혼의 의사인 신부가 되는 길을 포기했지만 육신의 의사가 된 것을 기뻐했습니다. 동생은 형이 처음으로 집전한 미사를 드리는 날 밤 형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 하느님은 사람들이 간절히 바라는 것은 꼭 들어주신다고 생각해. 우리가 10년 전에는 신부와 의대생로 만나게 될 줄 아무도 몰랐지만 이제 생각해 보니 우리가 간절히 바랐던 것은 단지 신부가 되고 싶다는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 형과 내가 간절히 바라고 또 바라야 할 것은 우리의 작은 행위들이 온 세상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것인 것 같아. 그리고 신부님이 된 거 진심으로 축하해.” **김민**

금주의 성인



성 마르코 (4월 25일)

마르코 복음서의 저자이신 마르코 성인께서는 베드로 사도께서 아들과 같이 아끼시던 제자로 바오로 사도와 바르나바 사도와 함께 안티오키아, 키프로스, 로마에서 선교활동을 하셨다. 희랍어에 능통한 성인께서는 베드로 사도의 통역을 맡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고 베드로 사도께서 가르치신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충실히 기록하여 마르코 복음서를 기술하셨다. 전승에 의하면 성인께서는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교회를 세우셨고 주교로서 복음을 전파하시다가 박해를 받아 순교하셨다고 한다.



■ 대구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연구동 신축공사 기공식



교구장 대주교님께서는 2013년 4월 11일(목) 오후 3시 대구가톨릭대학교 의료원 내에서 대구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연구동 신축공사 기공식을 거행하셨다.

■ 2대리구청 소람(소중한 사람)상담소 개소식



2대리구청 '소람상담소'(김종섭 토마스 신부, 2대리구 가정담당) 개소식이 4월 13일(토) 오전 11시 30분 2대리구청 박성대(요한) 주교 대리 신부 주례로 거행되었다. 소람상담소는 교우라면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으며, 전화 면담 후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문의 : 010-4965-7801 / 053-743-78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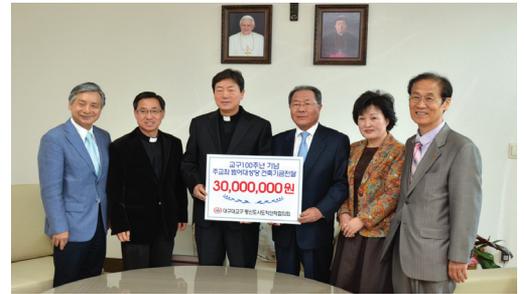
■ 남산성당 견진성사



교구장 대주교님께서는 4월 14일(일) 오전 10시 30분 남산성당에서 104명의 신자들에게 견진성사를 거행하셨다.

사진 제공: 가톨릭신문사

■ 교구 평협, 교구 100주년 기념 주교좌 범어대성당 건축기금 봉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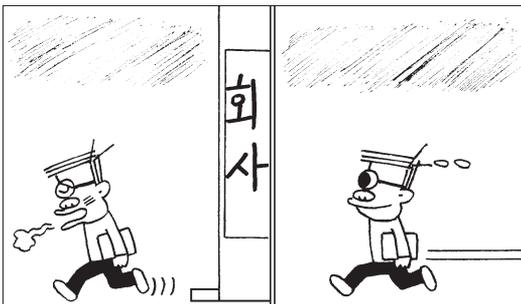
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는 4월 16일(화) 오후 2시 30분 교구청 본관 3층 교구장 대주교님 집무실에서 주교좌 범어대성당 건축기금 3천만 원을 봉헌하였다.



부활 제2주일(4.7.) 신앙의 해 교리퀴즈 정답은 <계시>입니다.

당첨자 : 엄수빈(울리아), 정순희(울리아나), 배경자(수산나), 김판섭(마르코), 박정자
당첨되신 분께는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힘들어도 괜찮아



박성규 엘리지오

미사안내

구미지역 밀알회 미사	4월 22일(월) 오전 10시	도량성당
대구지역 군중후원회 월례미사	4월 22일(월) 오전 11시	주교좌 계산성당
오순절평화의마을 후원회미사	4월 22일(월) 오전 11시	수성성당
1대리구 교정사목후원회 월례미사	4월 23일(화) 오후 2시	주교좌 계산성당
김천지역 교정사목후원회 월례미사	4월 24일(수) 오전 10시	김천 평화성당
김천지역 학교 복음화를 위한 미사	4월 24일(수) 오후 7시	김천 황금성당
바닝기도회 춘계 대피정 미사	4월 25일(목) 오후 3시	삼덕성당
대구지역 학교 복음화를 위한 미사	4월 25일(목) 오후 7시	성모당

성소 | 피정

사랑의씨든수녀회 성소 모임

일시: 4.27(토) 16:00
장소: 하양수녀원 (대가대 후문)
문의: (010)5705-5004

2박3일 무료피정(작은형제회)

기간: 4.26(금)~28(일)
장소: 가평 작은예수마을
내용: 모든 질병과 어둠을 버리기
출발: 대구시민회관 11:40
문의: 박테레사 (016)646-0583

섭리기도모임

일시: 4.28(일) 14:00, 성당성당
문의: 천주섭리수녀회 (011)9915-2104

향심기도 심화피정 및 소개피정

심화피정: 5.16(목)~19(일)
소개피정: 5.17(금)~18(토)
8.15(목)~16(금)
문의: 씨든영성의집 (041)733-2992~4

예수성심 영성피정

기간: 5.17(금)~19(일)
대상: 미혼여성
문의: 예수성심시녀회 수녀원
(010)2649-2045

교육 | 모집

대가대 대학원 후기 신입생 모집

일반 및 특수대학원(경영, 디자인, 신학, 사회복지, 음악, 국제다문화, 보건의료)
접수기간: 4.29(월)~5.10(금)
문의: 850-3637 / 660-5512(특수)
<http://www.cu.ac.kr>

제35기 가톨릭 복음 선교 교육

기간: 4.27(토)~28(일) 10:00
장소: 정하상교육회관 / 회비: 11만 원
문의: (044)863-5690 / (010)8848-5690

예수마음배움터 기도 영성수련

2박 3일: 5.24(금) 17:30~26(일)
4박 5일: 6.17(월) 14:00~21(금)

8박 9일: 5.13(월) 14:00~21(화)
황혼의 삶: 4.27(토) 15:00~28(일)
문의: (031)946-2337~8

동유럽 체험 여행 및 성지순례

기간: 8.6(화)~26(월)
대상: 초·중·고·대학생 및 일반인 / 가족
문의: 우아청 청소년 영성의 집
(010)3883-7004

5월 중순까지 신청(다음카페: 우아청)

가톨릭상지대 원격평생교육원 3차 모집

학점은행제 자격증 및 학위(온라인)과정
개강: 5.16(목)
과목: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문의: 1577-0361 www.cec.or.kr

42차 아일랜드·영국 영어연수 설명회

일시: 5.18(토) 14:00~15:00
장소: 남산성당
대상: 초·중·고 대학생·일반
주관: 마 신부님
문의: 그린피시엔터 (02)3446-4253

인공신장실 아간투석

영남의과대학 외래교수 원장 김영진 (안드레아)
☎ 053)656-7533

수맥흡침대

불면증, 허리통

임응승 신부님 수맥지도

☎ 1588-5335

2484 익스프레스

칠곡 313-2484
서구 566-2484
달서구 637-2484
수성구 761-2484

한여기(바오로) 011-514-3855

허리 아프고 무릎 아플 때

척추와 어깨·무릎을 치료하는 12명의 의료진

참조은병원

원장 배광주(레오) 원장 송대홍(요한)

T. 630-8000 지하철 1호선 승현역 2번 출구

이조맛김

김·건어물·젓갈류 판매

이 경 숙(모니카) 010-4123-5353
광천본사: (041) 641-3838 대구지사: (053) 255-3836
농림 | 351-0054-3404-83 | 예금주 이경숙
한글레도 배송해드립니다. 5년이상 이상 배움주 무료

인공신장실

신장 전문 수임내과

경북대병원 외래교수 김 건 현(라파엘)
상인역 ☎(053)642-7575

월치과병원

Ddm 카페 닥초의 치과이야기

Tel. 053)741-1100

지하철 2호선 수성구청역 3번 출구 농림 5층
원장 신수용(루카), 조창식

김영표버섯명가

www.pogokim.com

- 유기농버섯(표고·쌍황) 재배
- 체험 학습(건강·교육) 농장
- 버섯요리전문점(Slowfood)

☎ 053)852-7576 남경화(헤레나)
영남대학교역에서 경산IC 방향 5Km 위치

+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4.27(토) 故 김경식(보니파시오) 몬시뇰 3주기입니다.

교구민과 함께하는 이주민 미사

일시: 4.28(일) 15:00, 계산성당
집전: 교구장 조환길 대주교

청소년국 소식지

<Jesus club Times> 발행

발송: 매월 셋째 주 금, 이메일 전송
내용: 교구 청소년 사목소식과 교리 자료
문의: 교구 청소년국 250-3066
www.jesusclub.or.kr에 가입시 수신 가능

교육 | 모집

지성인을 위한 토요일안양특강

일시: 4.27(토) 10:00, 남산동 대신학원
주제: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의
회칙 다시 읽기(참가비: 5천 원)
강사: 이경수(라파엘) 신부
문의: 신학교육원 660-5105~6

18차 어머니학교 모집

일시: 5.16(목) 9:30~14:30부터
매주 목요일(5주간)
장소: 교구청 별관 대화합실
신청비: 10만 원
문의: 2대리구청 743-7010
봉사자 (010)6784-7773 / (010)3536-6143

25기 성요셉 아버지학교 개설 안내

일시: 5.25(토) 15:00~21:00부터
매주 토요일(5주간)
장소: 교구청 별관 대화합실
대상: 초등학교 이상 자녀를 둔 아버지
신청비: 15만 원 / 문의: 641-5678

관덕정 주관 5월 성지순례

일자: 5.12(일), 천호성지
신청: 4.24(수)부터 선착순
회비: 3만 원(중식 포함)
문의: 관덕정 254-0151

오르간 성악 지휘 전공반 모집

문의: 교구 음악원 255-4847

대구가톨릭문화관 강좌 교육생모집

천연비누·화장품, 쿼트, 리본공예
POP, 통기타, 우쿨렐레, 바이올린
오카리나, 플룻, 일본어회화
문의: 476-6211

세상속의 영성수련 수강생 모집

기간: 4.30~6.11(매주 화) 10:00~11:40
장소: 1대리구청 강당, 수강료: 6만 원
내용: 어떻게 살 것인가?
묵상, 관상, 성찰, 식별
문의: 대구CLC 752-0555

베네딕 청년 성가단 2기 모집

일시: 매주 월 19:30
장소: 삼덕성당
대상: 전례음악과 합창에 관심있는 청년

문의: 포교베네딕도수녀원
김후고 수녀 (010)7151-2004

성모기사회 옛멤버들 야외미사산행

일자: 4.28(일)
문의: 박상규 신부 (010)5380-8615

사랑-전율(비디오 아트 전시회)

기간: 4.24(수)~30(화)
장소: CU 갤러리(매일신문사 1층)
내용: 미사와 사제의 아름다움
문의: 대가대 융합교양연구소
850-2572, 5

제2회 국악성가 여름캠프

기간: 6.21(금)~23(일), 마감: 5.31(금)
장소: 하늘내 들꽃마을(전북 장수)
참가비: 18만 원(교재, 숙식포함)
문의: 예수고난회 국악성가연구소
(070)8875-8827

채용 | 안내

교구청 관리국 회계과 직원 채용

자격: 상경계 대졸자(한글, 엑셀, 더존 전산회계 가능자)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자필), 교적사본(심사 후 면접)
마감: 4.30(화) 17:00, 문의: 250-3005

교구법원 공시(253-9550)

관련된 혼인에 대해 문의할 것이 있습니다.
성명: 정미선, 하영수

책임보험 1억 가입업체
도우미믹스프레스
포장이사·사무실이사·일반이사
대표 양말순(루시아)
591-2424 656-9911
010-2008-2329

안경원
리네뜨
T. 427-8070
동성로 금곡삼계탕 맞은편
안경 트렌드의 중심
원장 옥정희 (프란체스카)

ME 66차 부부의
달성피부과
의학박사 / 피부과전문의
손재경(다미아노) 김인주(레지나)
아토피센터·여드름·흉터·주름·탈모
7호광장 두류역 2,3번 출구
T.566-4333

30년 전통
진실한 신자로서의 만남의 장
성가정 결혼
(053)474-0025, 476-9275
가톨릭 문화관 2층
남대우체국 옆 교대역 입구
권종문(파비올라)

밝은눈안과
원장/전문의 임홍식(라파엘) 장주희(헬레나)
초음파백내장/라섹수술
수술 전문 병원
달성고 맞은편 654-9660
지하철2호선 두류역(9번출구)앞

나가사키성지순례
5월08일~11일(3박4일)
순례경비 59만 5천원
성지순례를 함께 할 수 있는 가족을 구합니다.
●인원:0명 ●서류:이력서,자기소개서 ●당사 방문 후 면접
T. 053)253-3399
(주)성지여행 조철래(유스티노)

新대구정신과
New Daegu psychiatric clinic
불면증, 갱년기 우울증, 불안, 치매
식사장애(거식증, 폭식증), 비만, 스트레스
원장·전문의 김 정 윤(라파엘)
지하철 2호선 감삼역 2번 출구 앞
T. 053)566-0364

16년 경력, 보증보험가입
"이현숙의 결혼이야기"
국내 2006.04 매일신문 인터뷰 (피플 "세상속으로")
국제 2009-2010 경북 공무원 교육원 다문화강사
054)458-3223 수선나 010-6571-3385
리스토리결혼정보
구미시외버스터미널 본관2층